수백억 들였는데…소방차도 못 지나가는 지하차도

광산구 소촌건널목 지하차도 높이 3.4m 밖에 안돼 진입 불가능
진입도로 중앙 전기시설물 설치로 인도 사라져…부실설계 의혹
보행자 안전 위협에 주민·구의회 반발…개선 대책 마련 촉구

광주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널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수백 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광산구 소촌건널목'의 지하차도 높이가 낮게 설계돼 소방차 등 중·대형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지하차도와 맞닿은 지상도로 구간에는 인도를 없애고 전기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면서 '부실 설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광주시 광산구와 소촌동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달말 완공을 목표로 2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광산구 '소촌건널목 입체화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공사는 소촌건널목에 폭 13.5m·길이 120m 지하차도를 설치, 상무대로에서 송정공원 방면으로 차량과 사람 통행이 상시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열차가 지나가면 차단목이 내려와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 지하차도 공사는 소촌동과 신촌동 한 복판을 가로지르는 철로로 인한 극심한 차량 정체와 건널목 안전사고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됐다.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광주시와 철도시설공단 등은 건널목 횡단 사고 예방, 교통 체증 개선 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소촌건널목 입체화공사'를 추진해 왔다.

숙원사업이었던 공사진행 소식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던 소촌동·신촌동 일대 주민들은 공사 완공을 앞두고 "입체화 공사가 오히려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재공사를 요구하고 있다.

새롭게 설치되는 지하차도의 경우 높이가 3.4m 밖에 되지 않아 소방차 등 중·대형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방펌프차는 높이 3.4m(대형 기준), 소방물탱크차는 3.4m, 소방사다리차는 3.8m다. 소촌동에서 가장 가까운 송정119안전센터에서 송정공원 인근으로 소방차가 출동할 때 영광통 사거리나 송정고가차로로 우회할 수밖에 없어 기존보다 10분 이상 더 걸리는 등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공사 과정에서 송정공원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시설이 추가로 지하차도 진입 도로 중앙에 설치되면서 일부 구간의 인도가 사라졌고, 지하차도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보행로는 경사가 심해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주민들은 '인도를 확보하라', '도로공사를 중단하라' 등이 써진 현수막을 공사장 곳곳에 내거는 등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광산구의회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박현석 광산구의원은 지난 14일 제246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지난 12일에는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장이 현장을 방문, 공사관계자들에게 보완을 당부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데크 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승강기 설치와 전기실의 이전설치는 등은 공사가 끝난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수영대회 몰카 일본인 "근육질 몸매에 흥분"

경찰, 무안공항 휴지통에 버린 SD카드 찾아내 혐의 입증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에서 발생한 '몰카' 사건의 일본인 피의자 A(37)씨가 "근육질 몸매에 성적 흥분을 느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광산경찰은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받는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5일만에 A씨의 혐의를 입증한 경찰의 수사력에 대해 이례적으로 "(경찰의)치밀하고 발빠른 수사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회사원인 A씨는 13일 오후부터 이튿날까지 광주수영대회 다이빙 경기장과 수구 연습경기장에서 여자 선수 18명의 신체 하반신 특정 부위를 고성능 디지털카메라로 확대 촬영한 혐의다. 증거물로 분류된 '음란 영상'의 전체 분량은 17분 38초다. A씨의 행위는 14일 오전 수구 연습경기장에서 촬영 장면을 지켜보던 뉴질랜드 선수 가족의 문제 제기로 적발됐다.

13일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는 혐의 적발 후 기초 조사만 받고 15일 아침 오사카행 비행기에 오르려다가 당국의 긴급 출국 정지 조치로 귀국이 좌절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무안국제공항 화장실에 몰래 디지털카메라 저장장치인 SD카드를 버렸으나, 경찰이 이를 회수해 디지털 분석 작업을 벌인 끝에 A씨가 지난 13일에도 민망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찍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오는 24일까지로 한정된 A씨의 출국정지 기한 안에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휴일은 물론 밤샘근무까지 자처하며 혐의 입증에 집중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A씨가 공항 화장실에 버린 SD카드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혐의 확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면서 "24일까지 사건처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A씨가 벌금형을 받을 경우엔 보관금 사전 납부제도 등을 통해 귀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콘도 개발 비리 의혹' 전 고흥군청 과장 구속

고흥경찰은 "박병종 전 고흥군수 시절 콘도 개발을 하면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싼값에 건설사에 부지를 제공한 혐의(국고손실)로 전 고흥군청 과장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모 건설사에 공원부지를 콘도 부지로 팔면서 실매입가인 14억 8000여만원보다 저렴한 8억9000여만원에 팔아 5억8700여만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고흥군민 1000명은 2월 순천지검에 박전 군수와 담당 공무원을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박 전 군수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 지시를 내렸다. 경찰은 또 공유재산인 폐교 부지를 불법으로 매각한 혐의(국고 손실)로 전 계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북구 운암2동 새마을부녀회 등 지역 주민들이 18일 새한교회에서 어르신 300여명을 초청해 여름맞이 삼계탕 보양식을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더위야 물럿거라" 운암 2동 주민들 효사랑 삼계탕 나눔

광주시 북구 운암 2동 주민들이 무더운 여름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효사랑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해 귀감이 되고 있다.

광주시 북구 운암 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한미자)는 18일 새한교회에서 어르신 300여명을 초청해 삼계탕을 대접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설), 통장단협의회(회장 김경용), 바르게살기협의회(회장 윤상수), 새마을협의회(회장 김지홍), 새한교회(담임목사 이상덕) 등의 후원과 참여로 진행됐다.

새마을부녀회 한미자 회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24명으로 구성된 운암2동 새마을부녀회는 미역 및 다시마 등을 자체적으로 판매해 마련한 사업 수익금으로 매년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농어촌공사·산림조합 구멍난 대출 업무

부당대출 사기범 무더기 기소

허위 계약서 등으로 농지와 임야의 저금리 대출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 사기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대출사기 사건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김모(5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농지매입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로 장흥지역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2015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농어촌공사로부터 8억원 상당의 연 1%대 저금리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농지를 2ha 이상 경영하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1.3ha 규모 농지를 빌려 농사 짓는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공사에 제출한 혐의다.

김씨가 부당한 방법으로 8억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농지 가격은 현재 구입 당시보다 2~3배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씨의 대출 수사와 관련한 서류를 요청하자 중고농기계 구매 확인서를 위조해 제출한 농협 직원 1명에 대해서도 증거 위조 등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6일에도 장흥에서 임업 후계자 양성을 위한 산림조합의 임야매입정책자금 대출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김모(48)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됐다. 김씨 등은 공인중개사, 토지 매도자들과 짜고 장흥지역 임야 매매대금을 2~4배로 부풀려 2015년과 2016년 3차례에 걸쳐 총 4억원의 대출 지원금을 타낸 혐의다. 김씨는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부당하게 대출받은 4억원을 모두 변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지원금은 농업과 임업에 계속 종사할 것을 기대하고 지급하는 성격으로 토지에 대한 투자, 투기로 변질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농어촌공사와 산림조합의 대출 업무가 허술한 부분이 많고, 전국적으로 유사한 대출사기 사건도 있을 것으로 판단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목포시의원이 동료 여성의원 성희롱 '시끌'

시민단체, 의원직 박탈 촉구

목포시의회 한 의원이 동료 여성의원을 1년 여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사건을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나서 가해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등 17개 시민단체는 18일 오전 목포시의회 앞에서 '목포시의회 성희롱 가해의원 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 민주당은 동료의원에게 수시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성희롱을 한 시의원을 제명하고, 목포시의회도 시의원 자격을 박탈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 이들은 "목포시의회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2차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시의회 의장은 의회 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더불어 민주당 전남도당은 목포시의회 K의원이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희롱했다는 징계청원서가 접수돼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 조사에 나서는 한편 오는 22일 도당 윤리심판위원회 회의를 열어 K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할 예정이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화순군산림조합 뇌물 비리 공무원 등 9명 기소

화순군산림조합 뇌물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뇌물수수 혐의로 화순군 A 과장(5급)과 B 실장(5급)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화순군이 발주한 수만리 생태숲 공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을 행사하는 대가로 브로커이자 하도급업자인 C씨에게 5000만원을 받아 B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B씨는 군수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총 13억원 규모 공사 중 6억원대의 하도급 계약을 딴 C씨가 1500만원, 화순군산림조합장 D씨가 3500만원을 마련해 공무원에게 전달했다.

산림조합장은 뇌물 공여 혐의 외에도 2016년 조합 사업비를 업체에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회수해 비자금 2억2900만원을 조성한 혐의(산림조합법 위반)와 인사청탁을 받고 6명에게 269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합장에게 승진 인사를 청탁하며 2000만원을 건넨 조합 관계자와 돈을 전달한 사람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9개월 아들 5층서 던져 숨지게한 지적장애 엄마

칭얼대는 아이 달래다 범행
광주서부경찰, 영장 신청키로

생후 9개월된 친아들을 아파트 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30대 지적장애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18일 A(여·36)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전 6시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의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1층 방향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이날 새벽 4시께 아이의 친부이자 사실혼 관계인 청각장애인 B(47)씨가 "아들이 칭얼댄다"며 화를 내자, 새벽 5시께 아들을 달래기 위해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A씨는 아이를 달랜 뒤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최근 바꾼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아 들어가지 못했고,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남편 B씨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청각장애인인 B씨는 당시 보청기를 벗어 놓고 잠이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과 5층을 오가던 A씨는 오전 6시께 아파트 5층 복도에서 아들을 밖으로 던졌다.

불과 몇분 전까지 아기를 안고 돌아다니던 모습을 봤던 이웃집 여성이 "아이가 어디 갔냐"고 묻자, A씨는 "내가 던져버렸다"고 말했다.

이웃집 여성과 대화를 나눈 A씨는 갑자기 1층으로 내려가 아기를 데리고 돌아왔지만 별다른 응급조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의 신고로 도착한 119구급대가 아기를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화가 나 아들을 창 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자원봉사자에 침 뱉고 행패부린 취객

쌍다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입구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침을 뱉고 행패를 부린 60대 취객이 경찰서행.

○…18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A(68)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수영대회 선수촌 입구에서 가래를 뱉다 20대 자원봉사자 얼굴에 튀겼고, 이에 자원봉사자가 항의하자 길거리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린 뒤 출동한 경찰까지 때렸다는 것.

○…A씨는 경찰조사에서 "만성적인 천식을 앓고 있어 침을 뱉었는데 실수로 자원봉사자 얼굴 쪽으로 튀었다"며 "술김에 행패를 부려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5:32 해짐 19:46 달뜸 21:28 달짐 07:22

태풍 대비 철저

흐리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광주	비	23/27	보성	비	22/27
목포	비	24/26	순천	비	23/27
여수	비	24/26	영광	비	23/26
나주	비	23/27	진도	비	23/26
완도	비	23/26	전주	비	23/28
구례	비	23/27	군산	비	23/29
강진	비	24/27	남원	비	23/28
해남	비	23/27	흑산도	비	22/26
장성	비	22/2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동~남동	0.5~2.0	동~남동	1.0~3.0
	먼바다	동~남동	2.0~3.0	동~남동	3.0~5.0
남해서부	앞바다	남동~남	1.5~2.5	동~남동	1.5~3.0
	먼바다(동)	남동~남	2.0~4.0	동~남동	3.0~5.0
	먼바다(서)	남동~남	2.0~4.0	남동~남	3.0~5.0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9:10	03:58
	21:03	15:45
여수	04:33	10:23
	16:22	23:01

◇생활지수

식중독	경고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좋음

◇주간 날씨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25(목)	26(금)
24/26	23/29	23/30	23/31	23/30	24/31	24/31